

번호: OP-E-007				
제 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혈청양성률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 서울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 Association between Helicobacter pylori and Health Status in Seoul School Personnel			
저 자 및 소 속	이희우1), 신선미2), 서일3) 1) 서울시 학교보건원, 내과, 2) 국립암센터, 암정보연구과,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Lee. Heewool), Shin, Sunmi2), Sui, Il3) 1) Seoul School Health Cente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2) National Cancer Center, Department of Cancer Information Research, 3)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분 야	역 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이희우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p><b>목적:</b> 본 연구는 교직원의 Helicobacter pylori(이하 H. pylori)혈청양성률을 밝히고, H. pylori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p> <p><b>방법:</b> 200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신체검사를 받은 초.중.고 교직원과 교육청 공무원 3,640명 중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 후 연구에 동의한 남녀 교직원 및 공무원 2,5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연구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문진표, 신체검사 결과표 또 H. pylori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알기위한 설문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혈청내 H. pylori 항체검사는 Immunochromatographic assay 방식인 Asan Easy Test H.Pylori 체외진단용 시약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SAS version 9.12를 이용하여 감염분포와 건강관련요인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차비를 구하였고, 이때 p-value가 0.05이하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p> <p><b>결과:</b> H. pylori 양성률은 남자는 67.7%, 여자는 61%가 양성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혈청양성률이 높았고, 남자는 20대일때 60.5%인 반면 50대, 60대는 각각 73%, 72.9%로 높았고, 여자도 20대는 40.3%인 반면 50대, 60대는 각각 58.5%, 63.2%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H. pylori 혈청양성률이 높았다. 혈액형과의 관계에서, AB형 혈액형일때 H. pylori 혈청양성률이 남자 78.5%, 여자 60.3%로 다른 혈액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다세대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 교직원의 H. pylori 혈청양성률은 55.3%로 단독주택보다 46.4% 보다 높았고, 남녀 모두에서 미혼일때 보다 기혼일때 가장 H. pylori 혈청양성률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직위, 학력, 가족 1인당 평균수입에 따른 H. pylori 혈청양성률은 남녀 모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H. pylori 혈청양성과 신체건강과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위장관계질환 또 폐결핵, 기타흉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과 H. pylori 혈청양성과는 남녀 모두 통계학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나 BMI, 식전혈당은 여자에서 음성군에 비해 양성군일때 각각의 평균과 이상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lt;0.05). 생활습관과의 관계에서 남자는 아침결식을 자주할 때,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에서 한갑이상상의 흡연량일때 H. pylori 혈청양성률이 더 높았다. H. pylori 혈청양성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교차비를 보면, 연령을 통제후 여자보다 남자가 1.47배, 성별을 통제후 20대에 비해 30대 1.47배, 40대 2.2배, 50대 2.34배, 60대는 2.5배로 H. pylori 혈청양성이 높았다. 또 남자의 경우 A형에 비해 AB형일때 1.67배, 미혼일때보다 별거중일때 3배, 커피를 마시지 않을때 보다 3잔씩 마실 때 4.71배, 아침결식을 안할때보다 매일 결식할 때 3.08배로 또 비흡연일때보다 과거흡연자일때 1.52배, 흡연량이 반갑미만일때 보다 반갑이상 일때 1.78배로 H. pylori 혈청양성이 높았다. 여자만을 대상으로 할때 연령을 통제 후에도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교차비 1.43배로 H. pylori 혈청양성이 높았다.</p> <p><b>결론:</b> 본 연구에서 H. pylori 혈청양성과 관련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혈액형, 커피섭취, 결핵력 등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었던 사회경제상태와 위장관계질환과의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				